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언어

예, 오늘이 2강 제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있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소제목으로 두 가지 나와 있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언어, 인식론적으로 보는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으로는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본다면요. 언어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철학 안에서도 언어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고, 철학 이외에 20세기에 새로 등장한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언어를 주 대상으로 하여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언어에 관계된 문제와 언어학에서 다룰 수 있는 언어에 관계된 문제가 ‘언어’라는 같은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일단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식론적인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인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 소쉬르의 한계와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언어의 내부 구조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소쉬르라는 이름과 결부돼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소쉬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소쉬르가 썼던,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도 한국어로 출판이 되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용 자체의 균형 문제 등과 같은 것들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저자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쉬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의 이분법들. 랑그와 파롤의 이분법, 그리고 랑그와 랑가주라는 이분법. 또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에 관계되는 이분법. 그중에서도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대립은 소쉬르가 새로이 고안해 낸 아주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분법, 언어라고 한다면 소리를 가지고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었는데, 이것이 소리 자체가 아닌 소리의 이마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소쉬르 본인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소쉬르가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소쉬르 이후의 엘름스레우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얘기한 부분이 있죠.

관념 자체가 아니라 관념의 이마주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사변적인 차원도 아니고 완전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아닌 그 중간의 어떠한 영역.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학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출현했던 다양한 인문 과학들, 인간과학들의 필요조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고 하는 발견은 언어에서 음향학적인 소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어떠한 틀로 만들어내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실증주의라는 말로 얘기했었는데, 언어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를 말하자면 실제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쉬르가 랑그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시에 있던 실증주의적인 차원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는 실증주의를 뛰어 넘은 또다른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쁘’라는 발음이 있을 때, 실제로 입을 어떻게 벌리고 공기를 어떻게 모아서 발음을 하는지, 예전의 음성학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양분 이론, 예를 든다면 무성이나 유성이나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별성으로 따진다면 ‘쁘’라는 발음은 무성음이 되는 거죠. 성대의 진동을 올리면 유성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내는 것인지 혀로 내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와 -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실제의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구조의 개념으로, 소쉬르 본인은 ‘구조’라는 말은 한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했어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구조’로 바뀌면서 그것이 다른 인문 분야까지 일반화 되니까 이것이 ‘구조주의’로 불리게 된 것이죠.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 다시 말해 변별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 상호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지 내용물 자체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세기를 풍미했던 구조주의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실증주의를 뛰어넘는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언어학에서는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념 자체가 아닌 관념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니피에, 이 둘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었어요.

▲ ‘구조’로서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초기의 언어학에서는 음향학적인 소리도 뺐을 뿐더러 같은 이유로 하여 개념, 관념과 관계된 의미론적인 부분도 제외하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상호 관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한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소리의 틀과 시니피에라고 하는 관념의 틀.

관념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문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빈껍데기예요. 문법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관념 세계를 재단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철학자들도 똑같은 문장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재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내면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재단이 잘못 되면 내용물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의미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재단을 잘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모든 철학적인 문제들도 결국은 재단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낸다면 내용물을 알아낼 수 있다는 차원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추상적인 구조물을 연구하려 했던 것이 20세기의 언어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실제 소리, 음향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내 입으로 낼 수 있는 그 모든 음향들, 이런 말소리뿐만 아니라 기침소리와 같은 소음도 거기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틀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 틀을 가지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소리들은 결국은 음성학적인 소리가 되어서, 음향과 음성이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그 것이 되는 것인데요.

틀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한국어의 음성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차원에서 음성론과 음운론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음운론이 시니피앙의 세계예요. 시니피앙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음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운론적인 틀을 통해 나오는 실제의 소리, 이게 한국어에서의 음성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슷한 구강, 성대 구조를 가졌잖아요. 다 비슷한데 한국인과 미국인과 프랑스인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잖아요. 틀이 다르니까 다른 틀을 통해 빠져나오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향, acoustic한 쪽과 이를 담아내는 틀, 그리고 틀을 빠져나온 소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을 무성이나 유성이나 혹은 입술로 내는 소리인가 다른 발성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냐, 또 입술에서도 두 입술 사이에 나는 소리이나 입술과 이빨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나, 이것들이 구조, 틀의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실제로 나오는 소리가 아까 얘기했던 ‘빠’와 같은 것, 여기에 진동을 주면 유성음의 ‘빠’의 소리가 난다는 것. 이게 이제 실제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음향과 음성은 다른 거죠? acoustic하고 phonetic은 그러한 차원에서 달라져요. 이게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학의 출현 이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 개념이에요.

그 이야기는 시니피앙 차원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시니피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시니피에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하는 주체라고 했잖아요. 시니피에는 의미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미하는 것이 시니피앙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호를 만드는 주체이고, 아까 제가 의미라고 했지만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호예요. 기호를 만들어내는 주체이고, 그래서 기호화되는 객체가 시니피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관념을 가지고 다시 관념의 틀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시니피에였잖아요. 아까 음향-어쿠스틱 / 그 다음에 시니피앙, 다시 말하면 음운론, 구조, 틀 이런 것 /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음성phonetic의 삼각구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빈 공간이죠. 거꾸집, 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빠 내면 실제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음성이고요.

▲ 변증법의 다의성

그 삼각구도를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를 직선 방향이 아니라 곡선을 그렸잖아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제가 곡선을 밑에서 위를 향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곡선을 그린 이유를 변증법적인 대답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변증법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 전에 ‘변증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거에서부터 다양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요. 정반대의 뜻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플라톤이 사용했던 변증법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변증법의 의미도 한 세대 안에서조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증법’의 의미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플라톤의 저작 안에 들어가 있는 변증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의미가 다 달라지더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한 사람이 쓴 용어도 다양한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완전히 다른 뜻을 사용했고, 그리고 최근에 헤겔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했고, 마르크스도 또 다른 뜻으로 쓰고, 어느 정도의 비슷함은 있지만 함부로 변증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의미의 혼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점 하나를 추출해 본다면, 이것이 한 점에서 한 점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어로 변증법을 디알리티케(dialektike)라고 하는데, 디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통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 디알리티케라는 말을 이데아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하죠. 이데아,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게 철학 아니에요? 그 진리의 세계를 찾아내야하는 것, 그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디알리티케라고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플라톤한테는 굉장히 숭고한 여로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의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만들었겠지만 새로이 논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 그 영역을 새로이 만들면서 플라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논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신에 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럴 듯하게 설득력 있는 것을 디알리티케라고 불렀죠. 변증법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이 배격했었던 그 부분에다가 스승이 숭고하게 생각했던 단어를 부여해요.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대화술’ 내지 ‘변증술’ 등의 용어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목적을 위해 말을 가지고, 말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점이죠.

물론 나중에 정반합(正反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헤겔도 그러하였고, 그것을 역사 철학적 관점으로부터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전환했던, 거꾸로 뒤집어 적용했던 마르크스도 그러하였고, 공통점은 하여간 세 개의 점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헤겔 이후로 사용하고 있었던 모순 개념, 정과 반 사이의 모순 사이에서 무언가를 추출해 내는 개념으로 ‘변증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 변증법적 대립의 차원으로 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acoustic이라고 하는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재해요. 그죠? 물론 ‘실재’라는 말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다시 얘기해야 하겠지만, 소리는 실재 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고, 현전하는 거죠. 반면에 소쉬르가 말하는 시니피앙은 없어요. 빈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소리는 있는 것인데, 시니피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실제 소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반에 대한 다른 반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정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 소리는 처음의 음향학적인 소리와는 같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개의 축을, 혹은 점을 두어서 뽑아내는 변증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도 정에서 반으로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니피앙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시니피앙이라는 것이 탄생함으로 인해 하나였던 그것이 세 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시니피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니피에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을 하려하는 본래의 세계, 무언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인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란이 경험론과 합리론 사이에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칸트로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시니피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니피에의 발견으로 인해 그것도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본래 경험하는 세계들. 그리고 이 경험의 세계는 아직 관념의 세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강아지나, 기타 다른 중앙제어 능력, 다시 말해 뇌를 가진 고등동물에 있어서는 다 공통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의 세계, 그리고 어느 정도 기억을 통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세계라는 것이죠. 아까 소리의 차원에서 얘기 한다면 음향학적인 세계에 해당하는 거죠. 음향학적 세계에서 보자면 우리가 내는 소리나 개가 내는 소리나 다 똑같아요. 소리는 소리에요. 우리도 개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개가 내는 소리와 인간의 음성학적인 소리가 다른 것은 바로 그 시니피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차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실제 세계, 실제라는 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실체가 무엇을 지칭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실체는, 우리가 경험해서 실제로 얻고 있는 현상들로 하고요. 그 자체를 우리가 관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언어학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규범 문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규범문법은 문장을 이렇게 만든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밝혀주

는 것이예요. ‘주어의 위치는 여기고, 시제의 일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이죠. 여전히 학교에서는 규범 문법을 가르치고, 규범문법에 의해서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문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문법은 몇몇 학자들은 ‘틀’이라는 말로도 애길 했고, 혹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했던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쪼개느냐’이죠. 아까 시니피앙 이야기를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범주론, 그리고 언어.

어떤 근거로 자르느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한 시도를 했었어요. 나중에 칸트도 12 범주로 나누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로 재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애길 했죠? 어떤 근거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철학의 범주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만일 한국말을 썼다면 완전히 다른 범주가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문법은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동사’라고 하는 말도 많이 써요. 주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뭐냐는 것이죠.

철학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실체’라는 말. 실체가 무엇이나. 여태까지 상당 시간 동안 최소한 서양 철학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에서 탄생이 된 이후로 항상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유일’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다양한, 다변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무엇인지 유일한 것, 동일한 것,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는 게 최소한 20세기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관심사였어요.

그리스 시대 때에 그것은 물이었어요. 물은 일단 변화무쌍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 딱딱해지죠.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면 바로 흩어지죠. 그 중간 사이에서는 흐르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게 물이잖아요. 혹은 공기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질료적인,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모든 것은 수(數)이다. 이건 어떤 형상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죠? 실질적인 물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해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짚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려 했어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철학의 최종 목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얘기한다

면 말이죠, 보통 논리학에서도 주어 술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범주 카테고리에서도 실체라고 하는 것, 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렇게 실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실제 있는 개체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 1실체라고 불렀고, ‘인간이다’의 ‘인간’은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제 2실체라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제 1’과 ‘제 2’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을 ‘제 1’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것만 보아도 플라톤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 1실체’라고 불렀던 그것은 허무한 존재예요. 조금 있으면 없어질 존재예요. 몇 십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존재이고, 곧 있으면 사라질 존재예요.

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해요. 이 테이블도 얼마 전까지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예요. 이제 곧 없어질 지도 몰라요. 오래 가봐야 몇 십 년도 안 갈 거예요. 모든 사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런데 반면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는 물건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물건이 없어져도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 있어요. 지금 ‘공룡’ 없잖아요. 실제로서의 공룡은 없지만 우리에게 공룡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공룡의 존재는 있어요. 공룡의 이데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도 적용이 안 돼요.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이예요. 그게 플라톤에 있어선 ‘실재(實在)’이죠. 그것이 이데아이고. 그러니까 각 사물의 이데아가 다 있는 거죠. 테이블은 테이블의 이데아가 있고 철수에겐 철수의 이데아가 있고.

그런 거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얘기하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문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제 1실체, ‘인간’은 제 2실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반면에 다른 설명이 또 가능해요.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 소크라테스는 신발을 신고 있다, 혹은 소크라테스는 학교에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열 가지든 열두 가지로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예요. 실체를 가지고 설명했느냐 아니면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했느냐.

이것이 주어, 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항상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였어요. 주어로 표현될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어가 아니라 명사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란 말이죠.

적어도 20세기 오기 전까지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었어요. 물론 과거 회랍철학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이다’, ‘공기다’가 아니라 ‘생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서양 철학은 다 플라톤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철학이 결국은 다 플라톤을 빼 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반(反)플라톤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플라톤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플라톤주의 철학은 실체라고 하는 개념을 빼 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실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실체, 실체라고 하는 것, 플라톤이 말했던 리얼리티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없어질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죠. 덧없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을 하다가 안하다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실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면, 어디다 무엇을 잡아야할 지도 모르는 것이죠. 운동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무언가를 던지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덧없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20세기를 같이 살았잖아요. 프랑스의 들뢰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또 백년이 지나고 몇 백 년이 지나면서 전체 철학사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미로 남을지 우리세대에서는 사실 속단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플라톤 이후에 가장 큰 혁신적인 변화일수도 있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실체를 중심으로 한 철학에서 실체가 아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테마로 끌어들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의 철학을 평가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게 결국 언어로 생각한다면 무엇인가요. 결국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으로 파악을 해야 할까요? 무언가 기호화 시켜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호화시키지 않고도 인식이 가능하긴 해요. 무언가를 보여주면, 어떻게 생긴 지 알고 그 차원에서는 사람이든 개든 똑같아요. 그리고 이빨로 깨물어보면 이가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호를 부여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정에 대한 반이에요. 시계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에게 이거를 보여줬을 때 인식은 해도 '시계'라고 말해도 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껍데기를 여기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통과해서 갖는 관념이

라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계’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사예요. 이것이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해보면 말이에요.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시계가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계의 특징을 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시계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요즘사람이나 고대 사람이나 공유했을 법한 테이블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테이블이라는 게 뭔지 안다는 얘기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특징을 안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테이블은 딱딱하죠? 말랑말랑한 테이블 보신 적 없죠? 테이블이 말랑말랑 하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요? 말랑말랑 하면 안 돼요. 딱딱하기 때문에 테이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무엇인지 안다는 이야기는, 말랑말랑할 것과 딱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뿐만이 아니죠. 딱딱하다고 해서 다 테이블은 아니잖아요. 평평해야 해요. 울퉁불퉁하면 테이블이 아니예요. 그럼 평평하다와 울퉁불퉁하다는 게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이야기는 그 특징들이, 부수적인 것이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범주 안에서 실체라는 것. 실체 말고 다른 부수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딱딱하고 평평하다고 해서 다 테이블은 아니죠. 그것이 전부라면 바닥도 테이블이겠죠. 그게 아니라 높이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테이블을 알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음성을 가지고서 시니피앙을 만들어낼 때도 그랬잖아요. 실체가 아니라 그 틀이라고. 지금도 실체가 아니예요. 높이의 개념, ‘높다 낮다’는 실제로 없어요. 실체는 테이블이 있고 바닥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것이 실제의 세계예요.

그런데 높다 낮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다’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다면 단단하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고, 이런 개념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은 무한에 가깝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범주를 몇 개로 딱 나눴다고 했잖아요. 칸트도 그러했고. 그 이외에도 많아요. 몇 개, 몇 개 하는 식으로 딱 집어서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실증주의적 사고의 결과예요. 구체적이고 역사화될 수 있는 무엇으로 집어서 말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10범주로 갈라놓은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아

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변별성을 가지고 나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개, 12개로 나눈 그것은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나뉜 결과가 어찌 되었든 변별성을 가지고 나누어진다는 그것 자체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정에 대한 반, 실재에 대한 반대, 부정. 그리고 있음에 대한 없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나누느냐, 아까 소리에서도 어떤 근거로 나누는가에 초점을 둔 것처럼 이 세계에서도 어떤 근거로 나누느냐.

그 특징들 안에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우연적 특징이라는 것과 필연적 특징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이 사물을 가지고 얘기해본다면 말이죠. 필연적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를 들어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드시 따라 가야하는, 아까 말한 단단함이 있었죠?

단단하지 않으면 테이블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평해야 한다는 조건과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 특징들이예요. 그것은 어느 테이블이든 다 공유해야 하는 특징이죠.

반면에 지금 이 테이블은 사각이잖아요. ‘사각이다’는 ‘원탁이다’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원탁이 아닌 팔각이 될 수도 있겠죠. 사각도 실체가 아니죠, 특징이죠? ‘사각이다’라고 하는 특징은 어떤가요. 필연적인 특징은 아니예요. 테이블이 꼭 사각일 이유는 없어요. 공간상의 이유로 그냥 사각이 된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안정된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4라고 하죠. 자동차 바퀴가 4개여야 하지 3개면 왠지 불안해요. 2개는 더 불안하고. 4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개로 많이 하잖아요. 동서남북, 방향을 꼭 네 개로 나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밖에도 동서남북, 동서고금, 남녀노소 등 꼭 네 개로 나뉘요. 그것 말고도 4원소도 있죠.

항상 4개가 가장 안정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3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이나믹한 숫자예요. 뭔가 불안하죠. 변증법에서도 3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3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숫자인 반면에 가장 안정적인 숫자는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실도 사각으로 짓고. 어쨌든 인간에게 공간 활용이 제일 좋잖아요. 교실은 사각인데 테이블은 삼각으로 만들면 맞추기가 복잡하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해서 테이블이 사각형이 된 것이지 반드시 사각일 이유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의 색깔도 흰색이든 황토색이든 반드시 그 색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도 흰 색일 이유는 없어요. 흰 색이 가장 환해 보이니까 골랐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의자도 반드시 검은 색일 이유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우연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 말고도 실체를 한정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간상으로 한정시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것, 저기 있는 저것. 예를 들어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집 내 방에 있는 테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느 지점을 딱 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소유관계도 거기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내 것을 많이 생각하겠죠.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한다면 자기 엄마를 제일 먼저 떠올리겠죠. 소유 관계죠 이런 것들은.

그 이외에 또 예를 든다면,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물’이라고 말을 하면 떠오르는 관념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마셨던 그것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H₂O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어야 해요. 각자 사전적 정의를 내려 보라고 하면 조금씩 다 달리 하겠지만, 크게는 각자가 말로 표현은 잘 안될지 몰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기 중에 있는 그것은 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70%인가요? 그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한 정의를 내렸으면, 예를 들어 ‘내 몸속에 있는 물을 물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을 물이 아니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어떤 일관된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의 물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반면에 그것과 상반되는 의미에서 한 일부분인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인지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또 범주를 나눌 수 있어요.

▲ 형이상학적으로 언어를 보자면 - 실체와 명사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단단하다, 색이 황토색이다’ 그런 특징들 말고 지금 얘기한 이런 특징들은 사물을 한정하는, 전체를 다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 중의 일부만을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호화 시켰을 때 같이 그대로 따라와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언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랑그’인가요, ‘랑가주’인가요? 랑그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언어에서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실제 사회 안에서 쓰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한국말을 쓰죠? 옆 사회로 가면 일본어가 쓰이겠죠.

그런 대부분의 랑그 안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특징들은 대부분 공유해요. 이를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아까 실체를 기호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시니피에화시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관념으로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실체를 시니피에화시켜 기호화된 것, 이것을 명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어에서는 이것을 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언어에서 명사라고 부르는 그 부분, 주변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단단하다, 평평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은 형용사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있어요. 글썄 형용사가 없는 언어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형용사를 쓰지 않는 언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특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은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여야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틀, 범주에 속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용사라는 것이 동사와 같이 쓰일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붙어있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실체의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나간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사건이죠. 그리고 ‘깨진다’도 보면, ‘황토색으로 깨진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미 저도 지금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맞추려고 ‘황토색으로’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부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황토색인 깨진다’ 이것은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어떤 사건에다가는 형용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명사라고 하는 것 주변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명사의 앞에 붙나 뒤에 붙나를 보는 것은 다시 실증주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앞과 뒤의 위치를 논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논리학적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랑그’에서 말해야하는 것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문제는 사회언어학의 문제예요.

불어의 경우, 한국어의 경우를 따져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순수한 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범주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회학적인 이야기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의미로 한정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시사라고 부르는 한정사예요. 이런 것들은 한정사라고 불러요. ‘이 책상’. 그리고 소유관계를 한정시키는 것을 소유사라고 불러요. ‘내 책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정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정사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해야하는데 잠시 휴식했다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죠.